

멀리건의 인물 형상화에 나타난 조이스의 현실 인식

이 인 기

『율리시즈』(*Ulysses*)는 멀리건(Mulligan)과 스티븐(Stephen)의 대결 구도로 시작된다. 멀리건은 『율리시즈』의 첫 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로서, 스티븐을 불러들여 그때부터 1장이 끝날 때까지 그를 괴롭히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스티븐의 연상과 내적 독백에 따르면 멀리건은 찬탈자이다. 작품에 묘사된 멀리건의 행위와 품성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는 조이스도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하여 조이스는 『율리시즈』의 독자들로 하여금 이들의 행방에 대한 그 귀추를 주목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멀리건과 스티븐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은 채, 제1장에서 사실상 종결된다. 주인공과 그에 대해 적대적인 인물과의 갈등은 계속적으로 작품 전개에 틀로서 기능할 법한데도, 그 이후에서는 멀리건이 거의 등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조이스가 이처럼 적대적인 인물과의 갈등을 해소 없이 종결한 의도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스티븐과 갈등을 빚는 적대적인 인물이 성격의 발전이나 변화 없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그 인물의 상징성과 모티프적 가치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하여 우선 멀리건의 행위에 대한 스티븐의 대응과 조이스의 묘사를 분석함으로써 조이스의 인물 형상화 전략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조이스가 이 전형적인 인물을 통해서 비추어 보이기를 원했던 동족의 형체와 그 인물이 이후의 작품 전개에 미치는 예형으로서의 가치를 검토하려고 한다. 다만 조이스의 인물들은 이른바 ‘동족의 도덕사’와 결부되어 있어서 거의 항상 사회현상적, 혹은 역사적 함의를 지니기

때문에, 멀리건에 관한 본 연구도 사회역사적 분석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1. 조롱하는 자

『울리시즈』의 첫 머리에서 멀리건은 사제의 미사 집전을 흉내낸다. ‘띠를 두르지 않은’ 사제복 같은 실내복(U 1.3)을 입고서 거울과 면도칼을 십자형으로 포개 엮은 면도물 종지를 들고는 미사 시작 기도를 하는가 하면 탑과 주변 지역 그리고 깨어나는 산에 축복을 빌기도 한다. 이러한 흉내뿐만 아니라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듯이 그가 바다로 수영하려 갈 때 ‘수건을 사제의 영대(領帶)처럼 목에 걸었다’(U 1.559)는 묘사는 그가 바로 사제의 투사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그가 미사의 핵심 절차인 성체 성사를 흉내내면서 성체를 여성형으로 부른 점(U 1.21)에서는 그 인물이 단순한 투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자체를 모독하고 조롱하는 자의 모형이라는 인상을 읽을 수 있다. 이처럼 사제의 외형을 지니고서 그 본질적인 직역을 조롱한다면 그 인물은 사제직의 수행 자체에 대한 비판을 형상화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멀리건이 거행하는 미사는 면도이다. 그는 ‘세심하게’, ‘주의 깊고’, ‘진지하게’ 자신의 미사를 집행한다. 그러나 ‘중세 시대에 예술을 후원했던 한 고위 성직자’(U 1.32-33), 교황 알렉산더 4세(Alexander IV)를 연상시키는 그 인상이 면도를 한다고 달라질까? 그 교황은 ‘자기의 딸이자 정부인 루크레시아 보르지아(Lucrezia Borgia)의 품속에 안겨있는 저 돼지 같은 교황’(JJ 256)이었고 그가 중세 예술의 후원자를 자임한 것도 자신과 가문의 명예를 위한 기념물을 남기려는 욕심 때문이었으므로 교회 조직의 부패와 교황이라는 지위의 타락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Gifford 7). 이러한 패덕과 몰욕이 외모의 미화로 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멀리건의 면도는 사제들이 미사의 의례적인 절차만 ‘세심하게’, ‘주의 깊고’, ‘진지하게’ 준수할 뿐 영적인 변화는 도외시키는 상황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제단에서는 신의 성육신이 찬미되지 않고 ‘초라한 개의 시체’(U 1.112)가 거론될 뿐이었다. 신의 존재가 없는 제단에서 신의 이름은 간투사로서만 사용되었고 사제의 이름과 ‘신도’인 스티븐의 이름만 부각되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서 신도에게 주어진 새 이름과 새 옷은 예배 행위의 완결을 상징하는 중생의 증표가 되지 못한다. ‘킨취’라는 새 이름은 면도칼이 수염을 자를 때 나는 소리를 딴 의성어로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며, 새 옷은 회색의 중고 바지인데 상복을 입고 있던 스티븐이 입을 수 없는 옷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선도자가 되자는(U 1.158) 그 미사의 교훈은 신과 신도들을 기만하고 모욕하는 ‘새로운 이교’(U 1.176)의 표명일 따름이다.

사제는 더 이상 신도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아파하는 존재가 아니다. 스티븐이 해인즈(Haines)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토로한 것은 신도가 현실의 고통을 해결해 줄 것을 사제에게 요청한 것과 같다. 그런데 멀리건은 대답을 회피하며 오히려 스티븐의 죄의식을 자극하여 그 상황의 반전을 도모하였다.

젠장, 너는 무릎 정도는 꿇을 수 있었다구, 킨취, 돌아가시는 너의 어머니가 너에게 요청했을 때 말이야, 벅 멀리건이 말했다. 잘난 것으로 치자면 나도 너에 뒤지지 않아. 하지만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네가 무릎을 꿇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애원하셨던 걸 한 번 생각해 봐. 그런데 너는 거절했지. 네 속에는 무언가 사악한 게 있어. . . . (U 1.91-94)

이후 ‘고통이, 사랑의 고통이라고 할 수 없는 고통이 그의 마음을 갇았다’(U 1.102). 이 죄의식 때문에 스티븐은 자연도 왜곡된 형상으로 경험한다. 포도주 빛 푸른 바다가 어머니의 죽음의 토악질을 환기시키는 녹색의 느껴운 담즙으로 보였던 것이다(U 1.109-10). 이런 경험은 어린 스티븐이 지옥 설교를 듣고 난 후 ‘그의 전 존재, 기억, 의지, 예지, 육신이 마비되고 지쳐버려서’(PA 136) 울 수도 없고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모습을 환기시켜 심적인 고통을 자극하는 멀리건과 함께 살고 있는 행위 자체를 스티븐의 자기학대로 해석하는 것(Wright 69-70)에는 무리가 느껴진다. 어머니의 위협적인 혼령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내면의 몸부림(U 1.279; 15.4155-245)도 자기를 처벌하는 행위일까?

죄의식이라는 편리한 기제가 효력이 없자 멀리건은 또 다른 유희책으로서 스티븐에게 중고 바지를 제의한다. 그러나 스티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필요한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당한다. 그러자 멀리건은 ‘자기 어머니도 죽인 녀석이 회색 바지는 못 입겠다네’(U 1.122)라며 야멸스럽게 욕을 한다. 그 다음

다른 사람의 평가를 동원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미친 놈 완전히 지랄 떠는 짓'(U 1.128-29)이라는 욕은 사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욕이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모욕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것은 멀리건에게는 '말도 안 되는 놈'(U 1.222)의 말도 되지 않는 짓거리에 불과하다.

비록 직접적이거나 팽포하지는 않았지만 멀리건의 태도에는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 스티븐은 이러한 폭력성을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 교회'의 건설 과정에 대한 상념에서 확인하고 있다. 멀리건의 얼굴에서 연상되는 능변가 크리스토포모스(Chrysostomos)는 성체 이론을 확립한 수사학의 대가인데, 그의 이론에 기초한 정통파가 이견을 가진 파당들을 폭력적으로 제거하였던 것이다: '진용을 이룬 천사들, 미카엘의 군대가 갈등의 시기에 늘 창과 방패로 교회를 보호하면서 [그들을] 협박하고 무장해제한 뒤 격파하였다'(U 1.662-64). 사실상 이러한 폭력은 제국주의의 폭력과 다를 바 없다. 성직자가 침략자인 영국인 헤인즈와 중첩되어 있는 것(The Reverend Mr Hugh C. Haines Love M. A.: U 15.4695)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죄의식과 폭력을 동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멀리건의 묵적 의식이 오로지 헤인즈에게서 얼마간의 돈을 우려내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멀리건이 이러한 호도책을 쓰면서 노린 것은 헤인즈의 거취 문제를 얼마부리는 것이었다. 이로써 그는 헤인즈로부터 돈을 우려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스티븐과 서로 불편한 심기를 주고받는 상황에서도 스티븐이 깨어진 거울에 대해 채치 있는 경구를 말하자(U 1.146) 멀리건이 이것을 이용하여 헤인즈의 돈을 우려낼 것을 종용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이 재탐을 부리는 멀리건은 지적인 좌절과 경제상의 실패로 신대륙으로의 대규모 이주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에게 정신적 곤핍을 배가시켰던 교회의 형상화이다. 교회는 신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가르치면서도 그들 자신은 외형적 성장에 주력하는 등 재탐을 부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 격감을 두드러져 보이게 하려는 듯 교회와 성당, 수녀원과 수도원, 그리고 신학교들이 길게 줄을 지어 서있다. 그것들은 퀸스타운에서 뉴욕까지 향해할 수 있도록 하는 용기와 돈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의 정신적인 곤핍을 배가시켰다. 아일랜드는 무수한 직무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이제껏 불가능한 일로 간주되던 일을 수행해 왔다. 즉 신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고, 영국에 수탈 당하면서도 베드로에게 바칠 헌금을 늘려주었다. (CW 190)

블룸(Bloom)이 종교를 '수지 맞는 책략'(U 8.17)이라고 정의한 이유는 조이스 자신의 비평문 속에서 이것 이외에도 다수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살펴보았듯이 멀리건에게 투사된 사제의 형상은 의례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자신들의 권위를 과시하고 죄의식과 폭력적인 비난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며 재탐을 부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 사제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신의 명령을 예배의 현장에서 바로 거부해버렸고 돈이라는 또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사실상 자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 이러한 지적들을, 멀리건이 '오, 내 사랑'(U 1.48)이라고 화답하는 등 남색자(U 9.734)의 혐의를 받는 점과 결부시켜 볼 때, 그는 사제가 지켜야 하는 복종과 청빈과 순결의 의무를 모조리 무시하며 조롱하고 있는 자이기도 하다. 그는 헤인즈가 보기에 신성을 모독하는 편이었고(U 1.605) 예수의 신성을 조롱하는 노래를 '하루에 세 번씩, 식후에'(U 1.610) 불러대는 등 조롱이 습관화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 오히려 반역적인 사제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스티븐이 답으로 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 바다에서 나오는 신부의 모습에 바로 뒤이어 제시된 사실(U 1.739-40)에 주목한다면 이러한 사제의 형상에 지나치게 집착한 것일까?

2. 즐겨 배신하는 자

신앙 행위의 본질적 수행을 조롱하는 자로서 사제에 대한 비판적 형상이 되었던 멀리건은 공교롭게도 아일랜드 역사상 정치의 과정에 대한 비판의 형상도 된다. 아일랜드 정치사가 파행을 거듭한 주요 요인은 배신 때문이었는데 멀리건에게는 그 배신의 모형이 투사되어 있는 것이다. 그는 스티븐이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그의 편에 서서 헤인즈를 골려주려고 했지만 그가 없자 헤인즈 앞에서 그의 문재를 폄하하고 조롱하였다(U 10.1089-90). 이러한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스티븐은 그를 '즐거 배신하는 자'(U 1.405)라고 칭하였다. 스티븐이 자신과 팔장을 낀 멀리건의 팔에서 크랜리(Cranly)의 팔을 연상한 사실(U

1.159)은 그 인물이 자신의 애인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을 고려하더라도, 그리고 크랜리라는 역사 속의 인물에 대한 인유(Gifford 9)를 참고하더라도 그가 배신자임을 증명한다.

그가 이러한 지칭을 갖게 된 연유는 조이스 개인의 경험에서 유래한다. 그는 멀리건을 자신의 친구인 올리버 고가티(Oliver Gogarty)에 빗대어 묘사하였다. 그는 고가티가 기회가 오면 맥넬리(Leonard MacNally)나 레이놀즈(Thomas Reynolds)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두 인물은 악명 높은 밀고자였던 것이다(JJ 237-38n). 아일랜드 정치사에 있어서 밀고자들은 ‘필요불가결한’ 존재였으며(PA 202) 그들의 배신 때문에 독립 투쟁의 중대한 거사들이 사전에 제압 당한 사례가 많았다. 스티븐은 우유 배달 노파를 보고 정치적 역할 관계를 떠올림으로써 멀리건이 이러한 정치적 차원의 배신을 환기시키는 인물임을 보여주었다.

떠돌이 노파, 없어지지 않을 비천한 형체, 자기의 정복자와 자기를 즐겨 배신하는 자를 섬기는 그들 공동의 침, 은밀한 아침에 다가온 전령. (U 1.404-6)

물론 정복자는 헤인즈를, 즐겨 배신하는 자는 멀리건을 지칭하며 그들은 각각 영국과 조국의 배신자를 대변한다. 그래서 이 초라한 노파는 아일랜드가 영국과 배신자들 사이에서 고통 당하는 상황의 상징이 된다.

실제로 멀리건에게는 정치적 배신의 암시가 투사되어 있다. 그는 ‘좌우로 흔들며 그렇거리는 . . . 말처럼 길다란 얼굴과 딱딱나무처럼 껄껄하고 옅은 색을 띤, 더부룩한 머리털’(U 1.14-16)에 ‘고르고 하얀 이’(U 1.25)를 갖고 있어서 영락없이 말의 인상을 띠고 있으며 그것도 목마를 연상시킨다. 목마는 트로이 전쟁의 목마에 대한 인유로서 아일랜드가 영국에 정복당하는 과정에 개재한 배신을 환기시킨다. 정복의 과정 중에 트로이 전쟁의 발발 원인과 흡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12세기경 아일랜드는 맹주 체제 아래서 소왕국들로 분립해 있었다. 그런데 1152년에 라인스터(Leinster)의 왕 더모트 맥머러(Dermot MacMurrough ?1126-71)가 브레프니(Breffny) 대공 오러크(O'Rourke)의 아내 더보길라(Dervorgilla)를 납치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오러크는 1167년에 당시 맹주

었던 오코너(O'Conner)와 협공하여 그를 영토 밖으로 추방하였다. 추방당한 맥머러는 헨리 2세에게로 가서 원조를 요청하였고 헨리 2세는 스트롱보우(Strongbow)로 불리는 펨브루크(Pembroke) 백작의 노르만 전사들을 보내 정쟁을 평정하게 하였다. 원군에 의해 맹주의 자리를 찬탈하게 되자 맥머러는 스트롱보우에게 딸을 시집보내고 왕위 계승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헨리 2세는 원조자였던 입장을 바꾸어 아일랜드를 식민지로서 관할하려고 하였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새로운 세력이 자라나는 것을 방조할 수 없었기도 했거니와 애초부터 정복을 의도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아일랜드 정복은 이미 정복왕 윌리엄과 헨리 1세 때부터 거론되고 있었고, 헨리 2세는 당시의 교황으로부터 1155년에 이미 정복을 승인하는 교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게다가 노르만 전사들이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륙 지방에 자신들의 정착지를 건설하였으므로 사실상 식민지 관할의 전초 기지까지 마련된 상태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헨리 2세는 맥머러를 트로이 목마처럼 이용하여 아일랜드를 점령하게 된 것이다.

조이스는 이 사건에 있어서 헨리 2세의 술수보다 맥머러가 남의 아내를 빼앗고 조국의 운명을 이방인의 손에 의탁한 사실에 더 주목하였다. 그래서 그는 영국의 저의를 축소하면서까지(without, needless to say, any great desire on their part: CW 162) 영국의 정복이 아일랜드 쪽의 거둬드는 요청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물론 이러한 강조는 그의 편지에서도 표명되었듯이 동족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이다. 어쨌든 그가 생각하기에 맥머러는 이후의 정치사에 있어서 스스로 트로이 목마의 역할을 함으로써 조국을 도탄에 빠트리는 배신자들의 원형(O'Brien 38)이 되는 인물이었다.

멀리건에게 이러한 배신자의 영상을 투사하면서 트로이의 목마를 연상한 것은 그의 생김새 때문만이 아니라 조국이 정복당한 사건과 트로이 전쟁 사이의 연관성을 다른 사람의 말에서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디지(Deasy) 교장은 조국이 정복된 사건의 주역들을 혼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트로이 전쟁과의 유사성을 전제하고 있다.

정숙치 못한 여자, 헬렌, 그 매넬라우스의 도망간 아내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은 10년 간이나 트로이와 전쟁을 벌였고. 한 부정한 아내가 먼저 그 이방인들을 이곳 우리 땅으로 데려 왔지. 맥머러의 아내와 그녀의 정부, 브레프

니 대공 오르크가 말이야. (U 2.390-94)

마텔로(Martello) 탑에서는 그 부정한 아내의 역할을 멀리건이 맡고 있다. 디지 교장의 발언이 지닌 진실성은 차치하고라도 멀리건이 영국인 헤인즈를 끌어들었다는 사실은 그의 행위에서 정치사적인 함의를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헤인즈가 ‘집안의 이방인’(U 9.37)이라는 사실을 스티븐이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멀리건은 그 정복자와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영국인을 두고 ‘돈과 소화불량으로 배때기가 터질 것 같다’(U 1.52-3)고 한 반면 동족의 열악한 생활 환경에 대해서 분개하기도 했지만(U 1.411-14), 그의 행적을 보건대 그는 오히려 정복당한 후 700여 년이 지나면서 문화와 언어가 동화되어버린 대부분의 아일랜드인들의 표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는 런던 토박이 방언인 코크니(Cockney) 풍으로 노래를 불렀고(U 1.299) 넬슨(Nelson) 제독에게 바쳐진 헌사를 흉내내어 ‘아일랜드는 모든 국민이 오늘 날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를 기대합니다’(U 1.467-68)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말은 비록 그가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스티븐에게나 동족에게나 제국주의적인 요구를 함축하므로 단순한 흉내내기로 간주해버릴 수만은 없다. 특히 그가 스티븐을 조롱하며 캘리반(Caliban)을 언급한 것(U 1.143)에는 탈식민주의 비평의 시각에서 볼 때 교육을 통해서도 향상되지 않는 식민지의 열등성에 대한 정복자의 단정마저 스며 있어서 그가 바로 정복자와 동일시되는 인물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가 동족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언급했을 때 우유배달 노파가 거기에 공감하거나 동정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의사라는 사실만을 인지하였듯이, 민족주의적인 발언으로도 그의 본질적인 의도가 여전히 스티븐을 이용하고 수탈하려는 것이었음을 상쇄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그에 대해서는 민족주의에 제국주의적 요소가 겹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점은 “사이클롭스”(Cyclops) 장에서 강고한 민족주의자 시민(the citizen)이 사실은 농민을 수탈하는 부재 지주라고 폭로됨(U 12.1312-16)으로써 민족주의의 제국주의적 형질이 확인되는 상황과 연계된다.

물론 그가 헤인즈를 끌어들이는 것은 그를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어보려는 목적이 있었다. 동족의 열악한 환경과 멀리건의 호주머니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파벨 기일의 위원회

실”(Ivy Day in the Committee Room)에서 보듯이 헨치(Henchy) 씨의 판단이 지닌 위험성을 상기시킨다. 자본을 얻기 위해 영국 왕의 방문을 환영해야 한다는 헨치 씨의 주장이 파넬(C. S. Parnell)의 기일에 일반론으로 용인되는 현실은 매수 당해서 합병을 승인했던 전시대 정치인들의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며 헨치 씨가 슬며시 영국 왕을 개인적으로는 존경한다(D 132)는 말을 해도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또 다른 배신의 질곡을 예감할 수 있을 따름이다. 역사 속에서 증명되듯이 그들은 정복자에게 오히려 이용당했었다. 탐의 생활에서도 보듯이 헤인즈는 멀리건의 기대와는 달리 어떤 금전적인 기여를 할 생각조차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을 내세우며 멀리건으로 하여금 우유 값을 치르도록 사실상 강요하였다. 이처럼 현실 상황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제국주의적인 본성은 그가 아일랜드 침탈의 책임마저도 역사에 돌려버리는 데서(U 1.649) 극단적으로 표출된다. 그가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 순간을 이용해 자신의 도덕성을 과시하는 통에 마지못해 우유 값을 치른 멀리건은 결국 스티븐의 돈을 우려내게 되었다.

정복자에게 이용당하면서도 정복자의 형상까지 닮은 멀리건에게 어떤 희망의 암시를 투사할 수 있을까? 멀리건의 본명은 맬러카이 멀리건(Malachi Roland St John Mulligan, U 14.1213)인데 이 이름 속의 인유를 살펴보면 배신으로 찢든 조국에는 희망이 없다는 조이스의 생각이 명백히 드러난다. 토마스 무어(Thomas Moore, 1779-1852)가 아일랜드의 영광이 배신 행위 때문에 가려지게 된 회한을 읊조린 “애란이여 옛 시절을 기억하라”(Let Erin Remember the Days of Old)에는 ‘맬러카이가 금장 고리를 목에 걸었을 때’(U 3.302-3)라는 구절이 나온다. 그 구절 속의 맬러카이(948-1022)는 바이킹들의 침탈을 격퇴한 동족의 영웅이었는데, 그 이름이 배신의 형상에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에 대한 희망의 지속적인 배신을 암시할 뿐이다.

3. 참칭하는 자

멀리건의 외모와 행위에 투사된 정치사적인 인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배신의 형상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앞서 제기된 신앙의 본질을 조롱하는 자로서의 면모를 고려해 볼 때도 그의 명령조인 말투와 권위적인 태도는 의외이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는 듯 보이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큰 목소리는 은폐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없다. 그는 탑 속에서 '난로가 주변을 이리저리 활발하게 움직이며'(U 1.314), 8시 이후에 우유를 갖고 오게 통보하고, 스티븐더러 우유 항아리를 가져오도록 명령하기도 하는 등 생활 전반을 장악한 듯 보이지만 그에게 투사된 형상과 그것에 상응하는 행위들을 염두에 둘 때 그는 오히려 그러한 가장의 역할에 대한 회화로써 기능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실제로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탑 속의 생활에 대해서 '집구석이 이게 뭐야?'(U 1.339)라고 말한 사실은 그가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가장을 참칭하는 자임을 반증한다.

특히 그에게는 『햄릿』(*Hamlet*)에 등장하는 클로디우스(Claudius)의 영상이 투사되어 있다. 한편에서는 그를 햄릿 부왕의 모상으로 보기도 한다. 그가 스티븐을 '바다로 비속 내민' 마텔로 탑 위로 불러내어 바다와 어머니의 연상을 통해 그에게 죄의식을 자극하였다고 두 사람의 관계를 해석하기 때문이다(Benstock 13). 그러나 탑 위에서의 장면만으로 햄릿 부왕과 결부시키기에는 그의 사고와 행위가 클로디우스를 더 많이 닮았다. 그는 클로디우스처럼 스티븐에게 사실상 상복을 벗도록 종용하며(U 1.112-19) 그가 미쳤다고 간주하였고(U 1.127-29) 자신에 대한 그의 불만이 무엇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U 1.161-62; 1.180). 더구나 스티븐이 자신의 방어 기제(PA 247)에 따라 때론 침묵으로, 때론 교활한 언술로 항의하며 결국 탑을 떠남으로써 멀리건에게 도전하는 점은 그가 햄릿 부왕을 살해하고 가장의 자리까지 찬탈한 클로디우스의 모상에 더 근접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스티븐이 아버지에게 대해서 어머니를 죽인 자라는 심정적 단정을 내리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햄릿의 인유 속에 암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햄릿의 녀리 속에 있는 고아하고 아버지를 사랑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죽여버리고 창녀의 형상을 덧씌운 사람은 클로디우스이다. 마찬가지로 스티븐에게 있어서 자애로웠던 어머니를 죽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아버지였던 것이다. 물론 어머니의 사인은 암이었지만(U 15.4187) 그가 아버지에게 대해서 생활 무능력자인데다 자신의 과거 예찬자일 뿐(PA 241)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멀리건이 그 더러 어머니를 죽였다고 비난했을 때 '누군가가 어머니를 죽였다'(U 1.90)는 대

꾸 속의 누군가는 바로 아버지이다. 이 아버지에 대한 블룸의 평가는 이 점을 반증한다. 블룸이 보기에도 생활고와 산고로 '아내를 닮아 죽여 놓고서 이제는 노래를 부르고'(U 11.96-7) 있는 아버지라면 그는 아버지의 자리를 참칭하고 있는 자일뿐이다. 멀리건은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형상인 것이다.

스티븐이 자신에게 '이상한 것들'을 요구하는 세 번째 주인으로서 멀리건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스티븐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는 헤인즈의 평가를 듣자 자신이 세 주인을 섬기는 종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종이야. 두 주인, 영국인 주인과 이태리인 주인을 섬기지. 스티븐이 말했다. . . . 그리고 세 번째 주인도 있어. 나한테 이상한 것들을 요구하지. (U 1.638-41)

그런데 그는 두 주인의 정체는 밝혔는데 세 번째 주인에 대해서는 '이상한 것들을 요구하는' 인물이라고만 말했다. 이 세 번째 주인의 정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다. 우선 그 주인은 조국 아일랜드일 수 있다(Blamires 6; Peake 130). 조이스가 조국을 '미친' 여왕으로 묘사했다(CW 82)는 지적은 이 견해의 설득력 있어 보이는 근거이다. 그러나 그 미친 여왕을 영국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다(Benstock 16)는 점에서 미친 여왕을 근거로 세 번째 주인의 정체를 짐작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그 주인을 뮤즈라고(Hodgart 75) 하는 평자도 있다. 예술가는 자신의 뮤즈에게 헌신하는 종일 수밖에 없지만 그 종은 주인에 대해서 거역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스티븐의 의중을 간파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의 공통점은 하나 같이 이상한 것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세 번째 주인을 멀리건으로 보면 그 이상한 것들의 내용이 자명해진다. 멀리건은 스티븐에게 면도돌 종지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종을 섬기는 자'(U 1.312)라는 자의식을 갖게 한다든지 지식을 이용하여 돈을 받아내게 한다든지 자신이 번 돈으로 공짜 술을 사게 한다든지 그리고 혐의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남색을 요구할 수도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런 이상한 것들을 요구하는 세 번째 주인으로서의 멀리건이 대변하고 있는 아버지 형상은 『율리시즈』의 1장에 암시되어 있

는 오디시어스(Odysseus)와 텔레마커스(Telemachus), 햄릿과 그의 부왕, 그리고 노아(Noah)와 야벳(Japhet) 등의 부자 관계에 등장하는 아버지와는 현격하게 반대되므로 더욱이 그 아버지의 자리를 참칭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두드러진다.

헤인즈가 『햄릿』에 관한 신학적 해석을 언급하면서 ‘성부에게 대속(代贖)하려고 애쓰는 성자’(U 1.578)의 주제를 거론했을 때 멀리건이 그랬듯이 성부가 성자 예수의 신성을 조롱하는 노래를 불러댔다면 그 성부는 아버지의 자리를 참칭하고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헤인즈가 『햄릿』을 ‘훌륭한 이야기’(U 1.572)로 평가한 근거가 된 그 주제는 영국을 아버지의 위치에 두고 영국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질서에 식민지가 순응하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의 제국주의적 세계관을 드러낸다. 어쨌든 스티븐은 ‘아버지’인 멀리건에게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면도물 종지를 가지고 왔고 우유 배달 노파가 왔을 때 자신을 무시하는 그 상황을 참았다. 탐의 집세는 실제로 고가티가 지불했어도(JJ 172) 스티븐이 탐의 열쇠를 건네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으로 보아 일말의 의심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는 그 열쇠와 2펜스까지 주면서 나중에 술을 사줄 약속도 하였다. 이처럼 참고 있는 스티븐을 멀리건은 시종일관 마치 인격적 결합이 있다는 듯 조롱하기만 했다. 그는 스티븐의 콧물 닦은 손수건을 끄집어내어 자신의 면도칼을 닦았고 목욕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놀렸으며 ‘너는 우리가 남긴 것을 다 먹었어’(U 1.524)라고 편잔을 주었다. 비록 이렇게 놀려대는 일이 친구 사이에서 장난삼아 벌어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가 자신의 권한을 부리려고 한다는 점과 결부하여 생각해 볼 때 이 일들은 가장의 권위를 부당하게 주장하는, 그래서 그 권위를 의심받는 자로서의 행위를 드러내는 증거들이 될 수 있다. 멀리건은 사실상 자신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제국주의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아버지가 장악한 가정은 생활이 어떠할까? 스티븐의 아버지 집과 “짝패들”(Counterparts)의 패링턴(Farrington)의 집을 보면 우선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이 두드러진다. 실제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는 아버지의 이러한 전횡적인 현존에 의한 어머니의 정체 멸실을 대변한다. ‘자욱한 석탄 연기와 튀긴 기름의 연무가 떠다니며 돌고 있어 . . . 숨이 막힐 것 같은’(U 1.316-18) 탐 속의 환경은 이러한 가정 생활의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 멀리건은 그 탐을 지칭하여 ‘우리의 옴파로스’(U 1.544)라고 했는데 옴파로스는 ‘포위하다’는 의미를 지닌 오기기아(Ogygia) 섬과 연계된 곳이었고 그 섬이 올리시즈가 칼립소(Calypso)

에게 7년 간을 잡혀있던 곳이라는 인유를 고려한다면 그 가정은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구속과 억압을 강요하는 '참칭자들의 낙원'(U 3.317)이 된다. 이러한 가정은 헤인즈의 언급에서처럼 정치적 역학 관계의 상징이 될 수도 있는데, 조국의 아버지를 참칭하는 정복자 영국인의 집은 그들의 성일 수 있어도 피식민자 아일랜드인의 집은 그의 관이 될 수밖에 없다(U 6.821-22).

4. 악몽 같은 역사의 형상

앞서 살펴보았듯이 멀리건은 신앙의 본질적 직역을 조롱하는 사제로서, 정치사의 파행을 초래한 배신자로서, 그리고 가정의 권위를 참칭하는 자로서 형상화되어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그는 스티븐이 벗어나고자 했던 세 가지 올가미인 조국의 정치와 교회와 가정(PA 246-47)을 모두 포괄하여 대변한다. 특히 조국의 정치는 민족주의의 제국주의적 속성과 결부되어 정복자인 영국의 존재와 동일시되면서 스티븐이 섬기는 세 주인의 형체로도 부각된다. 그렇다면 스티븐이 마텔로 탑을 떠나기로 결정하게 된 동기가 멀리건, 돌아가신 어머니, 조국, 교회 등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볼 때(Peake 177) 멀리건에게 그러한 관계의 해악이 한꺼번에 투사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우선 변덕쟁이(U 1.518)라고 불릴 정도로 다면적이다. 그가 얼굴을 비추어 본 하녀의 깨진 거울은 그의 다면성과 대응한다. 따라서 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스스로 모순되는 자'라는 월트 휘트먼(Walt Whitman)의 시구는 인물의 증충적인 성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표면적인(Maddox 23) 변화를 언급한다. 그의 행동을 묘사하는 부사가 스티븐의 것보다 다섯 배나 많은 점(Peake 178)에서 드러나듯이 그는 역사를 연속성이나 궁극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현상의 나열로만 인식하는 발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Maddox 25). 하지만 이러한 다면성은 그가 대변하는 올가미들의 다양성과 그것들이 행사하는 구속력의 압박감을 적절히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삶의 현장을 세 주인이 장악하고 있다면 삶은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대결의 불가피성을 환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조이스는 정치와 종교와 가정에 대한 철저한 사실 인식을 기초로¹⁾ 그러한

삶의 영역에 대한 대결 의식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의식이 스티븐으로 하여금 멀리건을 적으로 간주하게 하고(Benstock 9; Maddox 114) 그 해악들을 조목조목 형상화하는 데로 구현된 것이다. 그가 교회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표명한 것(*Letters* II, 48)은 2천년 동안 권위와 존경만을 강요하여(*PA* 243) 아일랜드의 실제 주권을 거머쥔 듯 행세하면서(*CW* 173) 경건의 탈을 쓴 기만(*U* 5.391)을 자행하였고 결국 동족을 '사제가 날뛰는, 신이 버린 종족'(*PA* 37)으로 만들어버린 데 대한 배반감의 표출이다. 또한 정치사에 출몰하였던 밀고자들이 항상 곤고할 때 영웅을 배신한 것(*CW* 213)에 대해서 배신을 동족의 기질로 간주하고(*CW* 189) 조국 자체가 '제 새끼를 잡아먹는 늙은 암돼지'(*PA* 203; *U* 15.4582-83)마냥 역사의 질곡을 자초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집안의 문제에 관한 한, 그는 관에 누운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서 그녀를 회생시킨 가부장 체제를 저주할(*Letters* II, 48) 정도로 절절한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의식에 기초한 형상화였으므로 멀리건은 '부정의 정화'(*JJ* 265)일 수밖에 없다. '그 멀리건은 누구에게 듣더라도 지독히도 질긴 더러운 악당이야. 그 녀석의 악명은 더블린 전역에 자자하지.'(*U* 6.63-5)라는 욕은 그가 알라존(alazon) 형 인물임을 암시한다. 알라존은 공갈과 협박 및 찬탈을 일삼는 로망스의 악마적 인물인데(Frye 172), 멀리건의 행적 속에 이 유형의 표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고가티가 원래 악마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 그에 대한 스타니스로스(Stanislaus Joyce)의 증언과 엘만(Richard Ellmann)의 기록이 자료 조작의 결과이거나 부정확한 자료에 의한 추론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Kelly 162-68). 하지만 고가티와의 실제 경험에 기초했기 때문에 멀리건이 수궁이 가는 인물로 창조되었음은 분명하다. 어쨌든 그가 스티븐이 탈출하고자 했던 조국과 교회와 가정의 표상으로서, 그리고 벗어나고 싶은 세 주인으로서 형상화된 점에서는 그가 역사의 악몽을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가 다른 주 인물들이 긍정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인물인듯이 악몽 같은 역사는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가정적인

-
- 1)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가 조이스 작품의 보편적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그의 리얼리스트적인 성격을 불식시켰다는 평가가 있다(Kelly 77). 사실은 조이스도 대담에서 자신의 작품의 보편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Peake 348). 그러나 이러한 보편성은 그의 편지와 전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아일랜드적인 삶의 조건들을 철저히 천착한 리얼리즘을 전제로 한다.

삶의 모든 양태들을 울가미에 얹아 넣고 비상의 시도를 좌절시키며 마비된 것처럼 제자리에서 맴돌게 하는 부정의 현존이기 때문이다. 멀리건에게 투사된 이러한 일관된 부정성은 조이스의 역사 인식의 분명한 방향성을 암시한다. 따라서 멀리건이 구현하고 있는 악몽 같은 역사의 형체는 이후 작품 전개에 있어서 주 인물들의 행적과 관련된 모티프가 될 수 있다.

스티븐이 이러한 멀리건의 양태를 모두 경험한 뒤 그가 지배하는 탑으로부터 나오려고 결심하는 것은 악몽 같은 역사의 구체적인 형체를 파악하고 그것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주체적인 자아 회복의 시도로 볼 수 있다. 굳이 '영향의 불안'을 들먹일 필요는 없지만 스티븐의 시도는 증오하는 대상의 영향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확보해가려는 과정을 암시한다. 대상의 의미를 규정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스티븐이 탑을 벗어났다고 해서 그의 주체적 자아가 확립되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유보적인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그는 내내 '언짢고 졸리는' 기분으로 멀리건을 '냉랭하게'(U 1.13-14) 바라봄으로써 '이빨 빠진 키크'(U 1.708)라는 별명이 암시하듯이 날이 성긴 면도칼처럼 통찰력보다는 상처의 아픔을 먼저 환기시키는 존재로 나타나 있다. 그는 셰익스피어와 부권의 문제 등 자신의 이론과 생각을 표명하고 설파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지 못하는 '젊은' 예술가로서의 모습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것이다(Wright 78-9). 이 때문에 탑의 집세를 그가 지불했다는 말에 즉각 의심이 갈 정도로 빗투성이인 그의 금전 관리 태도(U 2.255-59)와 과시적인 격언 투의 발언들이 두드러져 보이고, 찬탈자라는 비난의 표명과는 달리 의외로 멀리건을 '숫돌'처럼 이용했다(U 9.977-78)는 심중의 고백이 더 타당하게 들리기도 한다. 그래서 그가 표방하는 주체적인 자아 각성(Blamires 4)의 의미가 『아버지를 찾는 야벳』(*Japhet in Search of a Father*)의 아버지 모형처럼 회색되어버릴 것이라는 예견도 가능하다(Benstock 12).

하지만 스티븐에 대한 이러한 유보적 요소는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그 래도 여전히 마찬가지지'(U 1.311-12)라는 자의식의 구현일 뿐 부정의 정화로서의 멀리건의 형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유보적 요소 때문에 그가 대결해야 하는 악몽 같은 역사의 지배력이 부각되어 보인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와 화해할 줄 알며 삶을 균형 잡힌 식견으로 이해하는 불륨이 멀리건과 동숙했더라도 이 평가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역

사는 누구에게나 여전히 깨어나려고 노력해야 하는 악몽이기 때문이다.

5. 맺는 말

본고는 조이스가 멀리건에게 조롱하는 자, 즐겨 배신하는 자, 그리고 참칭하는 자의 형상을 동시에 투사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각 형상을 스티븐의 '세 주인'인 조국의 정치와 교회와 가정의 현실에 대응시킴으로써 멀리건이 바로 역사의 악몽을 구현하고 있는 인물임을 입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인물이 1장에 등장하여 스티븐과 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된 것이 악몽 같은 역사의 모티프를 중심으로 이후 작품이 전개될 것에 대한 암시임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역사를 부정의 정화로서 묘사한 데에는 조이스 특유의 현실 인식이 함축되어 있다. 그는 멀리건에게 아일랜드의 정치적, 종교적, 가정적 현실을 투여함으로써 삶의 현실을 명백한 실체로서 용납하는 상상력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스티븐이 삶에 대하여 익사한 시체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탐으로 돌아가지 않는 데서 드러나듯이 조이스는 역사의 악몽으로부터 계속하여 깨어나려는 시도로서의 삶의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삶에 대한 인식의 보편성도 성취하였다. 그러므로 멀리건의 형상화에는 조이스적 리얼리즘의 핵심이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명지대)

인용 문헌

- Dubliners*(1914). Ed. Robert Scholes.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7.
Abbreviated as *D*.
-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1916).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4. Abbreviated as *PA*.
- Ulysses*(1922). Ed. H문 Water Gabler et al.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6. Abbreviated as *U*.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s.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New York: Cornell UP, 1959. Abbreviated as *CW*.

Letters of James Joyce. Vol. II. Ed. Richard Ellmann. London: Faber and Faber, 1966. Abbreviated as *Letters II*.

Benstock, Bernard. "Telemachus." In *James Joyce's Ulysses: Critical Essays*. Ed. Clive Hart and David Hayman. Berkeley: UC Press, 1974.

Blamires, Harry. *The Bloomsday Book: A Guide through Joyce's Ulysses*. London: Methuen, 1966.

Ellmann, Richard. *James Joyce*. Rev. Ed. Oxford: OUP, 1982. Abbreviated as *JJ*.

Frye, Northrop. *Anatomy of Criticism: Four Essays*. Princeton: Princeton UP, 1957.

Gifford, Don, and Robert J. Seidman. *Notes for Joyce: An Annotation of James Joyce's Ulysses*. New York: E. P. Dutton & Co, 1974.

Hodgart, Matthew. *James Joyce: A Student's Guide*. London: RKP, 1978.

Kelly, Joseph. *Our Joyce: From Outcast to Icon*. Austin: Univ. of Texas Press, 1998.

Maddox, Jr., James H. *Joyce's Ulysses and the Assault upon Character*. Sussex: The Harvester Press, 1978.

O'Brien, Máire and Conor Cruise O'Brien. *A Concise History of Ireland*. 3rd ed. London: Thames and Hudson, 1985.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Stanford UP, 1977.

Wright, G. David. *Characters of Joyce*. Dublin: Gill and Macmillan, 1983.

Abstract**Mulligan and the Nightmare of History**

Ihn-key Lee

This thesis treats Mulligan as characteristic of mocker, betrayer and pretender. Each figure corresponds to Stephen's three masters or nooses—Ireland's church, politics, and home respectively, which leads to his being a characterization of the nightmare of history. That is why he is described as a spirit of denial. Confronted with Stephen at the first chapter of *Ulysses*, it is supposed that he haunts the subsequent part of the work as the motif of nightmarish history. It is through his characterization that Joyce exerts his realistic imagination for Irish realities and achieves a universal pattern of life as the process of trying to awake from the nightmare of history.